



도회
수습사회

he Last Dance :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파헤치기

#6월 모의고사 분석

총평 Comment: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평가원, 특히 '지리 교육' 전공 교수님들과 선생님들이 무엇을 한국지리 교육에 필요한 내용, 방식이라고 생각하는지 나타낸 시험. 1컷이 50이 아닌 것은 수능이 아니고 6평이어서 그런 것이고, 아주 힘을 뺀 시험지는 맞지만 동시에 얻어갈 것도 꽤 있는 시험이다. 전반적으로 6평을 보며 느낀 점은 '지역 지리'에 한해서는 이제 웬만한 지역의 특성과 위치는 안다는 가정이 그냥 출제의 '디폴트'가 된 느낌이다.

원래 2010년대만 하더라도 사회탐구 말고도 변별을 할 과목들이 많았기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공부량을 투자하지 않았어도 되어서 '기후 추론'+ '위치 출제' 이 두 가지만 내도 수험생들이 변별되는 기초였는데, 2018년을 기점으로 인문지리 추론+지역성을 통해서 꾸준히 킬러로 변별하더니 이마저도 수험생들이 정복해버리니 이젠 '전 파트'를 지역성은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느낌이다. 남은 기간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심지어 북한까지 각 지역의 각 파트에서 나올만한 지점들을 다시 재점검 해보는 것이 좋겠다.

#믿거나 말거나 도희's pick

<1>

4번에서 보여준 지역지리 특색 비교문제를 다양한 지역을 찍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돋보인다고 생각한다. 171115(17학년도 수능 15번) 문제를 참고하자.

<2>

15번에서 나타난 북한+남한을 묻는 문제. 영역은 기후 or 에너지 or 농업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상대적인 차이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 이상은 굳이 물을 이유가 없다. 특히 항상 정설로 도는 찌라시는 수능 출제는 정권을 많이 탄다는 것인데...현재는 북한을 강조해서 낼만한 정권이 아니지 않을까?(정치적 의도 X). 그래서 내더라도 차이 확인 수준 혹은 내던 대로 기후를 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161109(16학년도 수능 9번) 문제를 참고하자

<3>

20번에서 나타난 지역별 다각도 추론문제. 다문화/외국인은 소진했으니 남은 영역은 인구/에너지/농공업 정도일 듯하다. 각 파트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특징'을 활용하여 구분을 시키고 추론을 시키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짙어보인다. 181120(18학년도 수능 20번, 역대 한국지리 오답률 1위. 필자는 현장응시 만점) 문제를 참고하자.

<4>

7번에서 단순 1차 에너지원 '생산' 관련 문제를 냈고 9평에도 별 다른 것 없었으니 아마 수능에는 다시 소비(공급) or 발전 관련 지표를 묻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180914(18학년도 9월 14번) 문제를 참고하자

<6월 모의고사 분석>

#1.

GIS 계산 문제이다. 매해 지리과목에 나오는 소리가 언젠가는 GIS로 변별할 수 있다라는 찌라시인데, 이미 6평에 소진되었으니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기도 하고 딱히 세지만큼의 GIS 응용을 보여준 적도 없으므로 단순 계산 문제에서 그치지 않을까 싶다. + 혹시 나오더라도 GIS+지역지리...? 가능할 수도? 적어도 수도권 같이 대놓고 외워야 하는 지역에서는 낼 수 있으니까.

Comment: 이렇게 눈알 굴릴 때마다 헛갈릴 문제들은 A~E를 각 위치에 쪽 적어놓고 시작하자. 손이 눈보다 빠르다.

#2.

도시 재개발 관련 문제이다. 도시 재개발은 내용의 한계 때문에 재개발 방식 간의 비교를 하는 수밖에 없어서 낸 아주 기초적인 문제이다. 어쨌든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개편되면서 따로 단원을 떼어 줄만큼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요해져서 다시 수능에 내도 이상하지 않은 파트이나, 나오더라도 변별을 할만큼의 이유는 없으니 재개발 종류와 그 상대적 비교 정도만 머리에 넣고 들어가자.

Comment: 당연히 이 XYZ그래프 문제는 원점에서 시작해서(연필로 찍고) 쪽쪽 이동해서 만나는 곳 바로 찍는게 편하다. 뭐 이걸 모를 리는 없겠지만.

#3.

시기별 기후 구분 문제다. 이런 식으로 단순 기후 구분이 나올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의미가 있는 것은 현재 지리교육에서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타과목+지리 출제다. 언제든지 이렇게 융합해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저기서 해석본을 안 주는 등의 짓거리를 할 평가원이 아니다. 그렇게 내버린다면 "이건 지리 문젠데 왜 우리한테 문학 해석을 시켜요?" 라고 해버리면 반박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연히 무슨 과목과 융합하든 상식선에서, 보조적 자료를 주고 낼 것이므로 걱정하지는 말자. 그냥 풀지 않으면 된다.

Comment: 문학 장인도 아니고 쓸 데 없이 원문 읽고 있지 말자. (가) 얼어붙어, 흰 눈 = 겨울, 나머지 (나)=여름 처리하고 선지 넘어가는 것이다.

#4.

전형적인 지역지리 특색 문제다. 요즘 변별을 지역지리 자체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대놓고 내는 식의 문제도 출제 가능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특히 최근 수능에서 이런 식의 지역지리 문제를 뽕세게 낸 적이 없는데, 이전 같이 정말 여러 곳 찍어놓고 옳은 것만 고르시오로 출제된다면 그 또한 변별이 가능할 것이다.

Comment: 이런 문제는 항상 중요 키워드만 뽑아서 판단한다.

‘도청’ + ‘슬로 시티 한옥마을’ + ‘세계 소리 축제’-> 전주

‘도청’ + ‘세계 문화 유산 전통마을’ + ‘탈춤 페스티벌’->안동

#5. 그냥 대놓고 ‘광역시’+‘특별시’는 모든 특성을 수험생이 인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낸 문제다. 정확히 모르더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었던 문제지만 주요 시도의 비교는 이제 대놓고 뭘 내더라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산업, 에너지 등 상식적 선에서 추론 가능한 상대적 비교는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출제 소재

Comment: 이런 비교표가 나오면 다 0되어 있는 부분은 볼 필요도 없다. 차이가 없다는 것이니까. 차이 있는 친구들만 보고 비교하면 된다. 항만은 당연히 바닷가에 있다는 가정, 원자력 발전소도 바닷가에 지어야 하지만 애초에 몇 개 없기에 수능 한지 필수 암기사항이므로 풀 수 있다.

#6.

도시파트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알겠지만 이제 옛 기출처럼 단순 도심vs교외 비교는 하지 않고 디폴트 값이 도심vs교외vs3자 느낌이다. 거기다가 이제 강남은 너무 많이 내서 강남은 도심의 특성 값도 엄청 높고 거주지적 특성도 엄청 높은 것을 알아야 한다.

Comment: 이 문제는 강남이니까 (나)=둘 다 높네? 강남이겠구나 해도 되지만 일단 구로든 영등포든 금천이든 제 3의 구가 찍힌다면 일단 도심vs 교외로 양 극 값 처리하고 나머지에 끼워맞춰서 소위 말해 ‘아다리’가 잘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7.

자원의 '소비'나 '발전'의 출제는 너무 많이 빈출 되어서 학생들이 잘 풀어 나가는 편이지만, 이렇게 잘 안 내던 '생산'을 내버리면 순간 당황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은 비단 인문지리에서 뿐만이 아니다. 기후도 추론을 약하게 내거나 안 내고, 대놓고 기후 개념을 날카롭게 물어버리면 틀릴 학생들이 너무나도 많다. 남은 기간 공부의 핵심 포인트는 이런 당황할만한 측면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소홀히 해왔던 개념과 통계들을 다시 점검하면서 암기하는 것이다.

Comment: 항상 절대 값 선 처리는 가장 먼저 신경써야 할 문제 풀이 방법이다. 물론 뭐가 더 특수해보이냐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본인 기준으로 생각하자. 딱 곳에 안 들어가던 경남이 들어가는 고령도가 특수할 수도 있고, 강원에서만 나오는 철광석일 수도 있고...

#8.

대놓고 한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보는 문제다. 이런 식의 출제는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고 생각하기에 pass. 물론 유형은 전형적인 평가원식 출제 방식이다. 다만 저 중에 이렇게 한 지역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 특성의 정오를 물을 가능성이 높다.

Comment: 유소년 부양비 높다? 하는 순간 바로 손이 가는 곳이 있어야 한다.

#9.

기후 추론 문제의 전형적인 디폴트 값. 동위도 내에서의 비교. 특히 이 위도 내의 출제는 너무나도 많이 이뤄져서 기출을 제대로 봤다면 머리 안에서 비교 값들이 딱 떠올라야 한다. 디폴트는 이렇게 내고 난이도를 조금 올리고 싶다면 그 중 몇 개를 다른 위도대의 지역으로 바꿔서 내는 식으로 변주를 주는 것이 기후 추론 문제 출제의 핵심이다. 다시 한 번 외우지만 진짜 짝 다 외울 것 아니면, 절대 기후는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다. 기후에서 절대적 암기사항은 기후의 특성과 그 지역의 기후 특성 정도이다(지도에 나오는 무-진-장 라인 보고 어? 호남 내륙지방! 하면 안 되니까)

Comment: 여기서도 항상 특수 값 선 처리. 최난월 기온이 10도대로 떨어지는 태백산맥 쪽 지역을 먼저 처리하든, 여강집이 높은 울릉도를 먼저 처리하든, 여강집이 높은 인천을 처리하든 특수해 보이는 애들부터 처리하다보면 상대비교는 달랑 한 두 개만 남는다.

#10, 16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자연지리는 흑시라도 헛갈릴 상황을 대비해서 출제쌍을 알아둬야 한다는 것이다. 고위평탄면-침식분지 석회동굴-화산동굴 카르스트 지형-기생화산 지형 등이 전형적인데, 이렇게 두 개나 내버렸다 이렇게 출제 쌍을 알아둔다면 해석이 훨씬 용이한 점이, 순간 헛갈리더라도 하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석을 하면, 나머지 출제된 것이 무엇인지 추측이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형도는 빠르게 정확하게 처리하고 바로 크게 밑지 쓰고 내려가는 것이 핵심.

Comment: 고위-침식 나오면 봐야할 건 등고선의 수치가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기생화산-카르스트 나오면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11, 12

해안 지형은 어렵게 내기가 쉽지 않고, 하천지형은 어렵게 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몇 년 전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하천 지형을 매우 어렵게 내서 학생들이 선지에 당황하여 오답률이 급감했던 적이 있다. 그럼에도 어쨌든 하천/해안 지형의 한계 때문에 터무니 없이 어렵게 나오는 것은 힘들고, 적어도 이런 지형 '구분'에 초점을 맞춰서 낼 가능성이 높다

Comment: 자연지리는 결국 제대로 된 개념.

#13

전형적인 지역+농업 추론 문제다. 6평이라 힘을 좀 많이 뺐 느낌이라서 단순 작물을 추론해서 구분하고 특성비교를 했지만, 최근 3년 내외로 보여준 평가원의 가이드라인은 '농업은 좀 수치를 외워라'이다. 왜냐하면 '농가 수'나 '농업종사자 수' 등의 절대적 '수' 수치는 일반성을 통째로 추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 실제로 나온 적이 많았고(기출에서 다시 확인해볼 것) 맞닥뜨렸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농업의 주요 구분인 권역별 순위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밖에 없다.

Comment: 농업 작물 간 비교할 때 가장 특수한 것은 과수. 그래서 과수 많이 하는 제주나 경북이 나오면 그쪽부터 처리하는 것이 핵심.

#14.

공업도 농업과 함께 '통암기'=풀이가 적용되는 파트이다. 기본적으로 각 주요 공업도시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공업도시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하고, 각 산업분야별 TOP3를 외워두는 것이 핵심이다. 그 이상 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출하액이든 종사자 수든 어떤 기준으로 나오든 간에 TOP3 지역은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Comment: 경기, 대구, 서울? 바로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가)-(나)-(다)가 선지에 주어져서 매칭하는 유형은 자료를 먼저 해석해서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기 전에 선지부터 보고 어떤 것과 매칭시켜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편하다.

#15.

북한을 포함한 기후 문제이다.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의 기후는 너무나도 많이 출제 되어서 대표적인 지역들의 기후 특징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당연히 지역을 어디를 찍든 간에 상대 비교는 가능해야 한다. 거기다 북한은 기후, 에너지, 농업, 교통 등 다양한 파트와 엮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자.

Comment: 북한은 남한을 비로 이길 수가 없다. 아무리 남한에서 소우지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는 경북 내륙지역도 북한에 비하면 못하다는 것이다. 그 사실은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가)-(나)//(다)-(라)로 구분되어 상대 비교는 딱 두 번만 하면 된다.

#17

Pass하려고 한다. 나와도 1번 문제로 나와야 할 문제. 6평이라 이 위치까지 밀린 것이다.

Comment: 직선-통상 위치별 기준 잊지 말자. 그리고 바다의 각 구역별 허용되는 범위도.

#18.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나름 얻어갈 만한 문제이다. 평가원이 수도권은 진짜 내놓고 뭘 물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이 돋보이는 문제다. 물론 이걸 영역별로 단계구분도 식으로 주어 쳐서 구분이 쉬웠지만, 도시 간의 구분을 요하는 문제도 충분히 출제할 만 하다.

Comment: 괜찮은 출제 유형+내용에 비해 너무 허무한 난이도다. 이보다는 어렵게 구분시킬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자.

#19

오답률 1위의 문제. 사실상 변별을 이 문제 하나로만 한 셈이다. 아마 이 문제로 변별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 해석하고 일반성에 기반하여 추론하면 충분히 쉽게 푸는 문제다. 물론 저렇게 나온 지역이 각각 어딘지는 당연히 알아야 한다(암기사항).

고흥=노령화 끝판왕, 노인들 많아서 성비 낮음

김해=서울에 인천이 있다면 부산에는 김해가 있음. 나름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부산과 연결되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도시

거제=경남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중 하나. 조선업이 활발하며 공업 노동자들이 많아 성비가 매우 높음

이를 활용하여

노년층 인구 많고, 노년층 성비 낮은 (가)와 청장년층 인구 많고, 그 층의 성비가 100이 넘는 (나)에 어떤 지역들이 매칭되는지 생각해보면서 풀면 된다.

Comment: 이 문제를 많이 틀린 이유는 6평 시기에는 현역들은 지역지리를 잘 외우지 않아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일 것이지 않을까?

#20.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한다. 서로 모여 있지 않은 각각의 명확한 세 지역을 비교시키고, 잘 출제되지 않던 외국인 관련 지표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다. 평가원이 6평에서 유형이나 출제 방식을 하나 채택한다면 단연코 19번이 아니라 20번일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거주자들은 크게 돈 벌러 오는 사람, 공부하러 오는 사람, 결혼하러 오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점을 명확한 도시특성을 가진 도시간의 비교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다.

Comment: 대전은 과학/기술/교육의 도시, 안산은 다문화특구이자 공업도시, 예천은 그냥 촌 지역 아무거나 갖고 온 것(아마 통계를 긁어올 때 그나마 외국인 결혼 이민자 수가 두드러지는 곳을 가져왔을 것이다).

